

보도설명자료

(’23. 3. 30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사업을 차질없이
추진 중

(3.30일 아주경제 「‘반도체 아카데미’ 4월 개강 힘들다. 정부, 시설비
안줘 장소도 못구해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인 ‘반도체 아카데미’의 교육장 구축
예산이 반영되지 않아,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목표의 달성 여부 불투명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필요 인력을 양성하기
위해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중임
- 반도체아카데미는 계획대로 4월말 개강 예정이며(온라인 4월말, 오프
라인 6월말),
 - 강사진은 현직·퇴직 엔지니어 중심으로 20명을 이미 선임하였고,
수강생은 4월 중순에 공고를 통해 선발할 계획임
- 아울러, 정부는 ’23년 반도체아카데미 소요비용 50억원 중 23억원을
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,
 - 해당 예산과 민간 산업계의 출연금 등을 활용해 차질없이 아카
데미를 구축·운영하여 연내 520명을 양성할 계획임

※ 문의 : 반도체과 이규봉 과장(044-203-4270) 조예은 주무관(4254)